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결기대회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결기대회에서 의사생, 전공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남 국립의대’ 내년 무산 ‘플랜B’ 시급

“의대 없는 유일한 곳”...대선후보 통해 신설 공약화해야
의료 지표 전국 최하위권, 의대 설립 명분 차고도 넘쳐

의정 갈등에 이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백지화로 전남 국립 의과대학 내년 신설이 무산되면서 2027년 개교를 위한 ‘플랜B’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고도 넘치는 신설 명분에 의료 취약지 지자체 간 연대 등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재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21대 대선과 9회 지방선거 경선시기가 맞물려 있어 2보 전진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경선과 합동연설회는 중차대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논리개발도 중요하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은 별개’라는 대전제 아래 불모지 전남에 첫 의대 신설은 명분이 차고도 넘치는 점을 집중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수도권에 의대가 집중된 가운데 전북과 충북에도 각각 2개, 강원에는 4개의 의대가 있으나 전남에는 국·공·사립 통틀어 단 한 곳도 없다.

 전남은 특히 노인·장애인 비율이 25.6%와 7.6%로 전국 1위고 의사 없는 유인도 역시 무려 164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지방의료원 내 상급수 진료과는 휴진 상태다. 공중보건은 해마다 줄고 있다.

 1인당 의료비는 242만원으로 경기도의 1.5배로 전국 1위다. 중증응급·외상환자 유출률도 48.9%,

49.7%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 데다 원정 진료로 인한 의료비 유출도 연간 1조5000억원(7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응급실 전담 의사수도 전국 최하위인 반면 긴급환자 이송시간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끝단타임 확보가 버거운 실정이다.

 여러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다투는 경북과의 연대로 고민해 볼 대목이다. 경북에선 안동 국립 의대에 지역인재 육성, 포스텍에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김영록 지사는 “모든 도민이 헌법에 보장된 차별 없는 건강권을 누리도록 전남에 국립 의대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김호기 기자

이재명, 충청이어 영남 경선서 90% 압승
 ‘대세론’ 공고...2위는 김경수 5.93% · 김동연 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두 번째 순회경선인 영남에서 90%대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북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를 열고 권리당원 및 대의원 대상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이 후보가 90.81%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17일부터 나흘간 온라인·ARS 투표에 참가한 민주당 권리당원·대의원 7만3255명 가운데 6만6526명이 이 후보에 투표했다.

 2위는 김경수(5.93%), 3위는 김동연(3.26%) 후보가 차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첫 번째 순회 경선지인 충청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가 합산 88.15%의 득표율을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아 담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 후보가 합산 88.15%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선 후보가 7.54%, 김경수 경선 후보



가 합산 4.31%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88.16%, 전국대의원 투표에서 87.32%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는 권리당원 7.53%·전국대의원 8.43%를, 김경수 후보는 권리당원 4.31%·전국대의원 4.25%를 각각 얻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실시됐다. 충청 경선 권리당원·전국대의원 선거인단 총수는 11만1863명으로, 이 중 6만4730명이 투표했다. 투표율은 57.87%다. 권리당원 투표율은 57.62%(선거인단 11만131명 중 6만3460명)였고, 전국대의원 투표율은 73.33%(1732명 중 1270명 투표)였다. /김도기 기자

전남 13개 시·군 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노동위 적극서비스

전남 13개 지역 16개 버스회사의 ‘2025년 임단협 교섭’이 모두 타결됐다.

 20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예방적 조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남 13개 시·군·16개 버스 노사의 2025년 임단협 교섭이 마무리됐다.

 타결지역은 여수(3개사)와 순천(2개사)·광양(1개사)의 시내버스 6개사이며 영광·구례·영암·무안·곡성·함평·화순·강진·고흥·

강진 군내버스사이다.

 버스 노사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노동조합에서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버스 분쟁 해결 전담팀을 구성한 뒤 각 시·군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체계를 구축했다. /김호기 기자

공직자 격무 업무는 교통지도	2면
한미 이변주 통상협의	3면
4050 고용한파	4면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금 - 25^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